

# 난 지금 매우 기분이 좋다

## I am very happy now!



권병조 | Kwon, Byung-cho  
대한건축사협회 상근부회장

**약력**

- 육군사관학교, 미국테네시 주립대 석사, 한양대 도시공학 박사과정 수료
- 공공기판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대한건축사협회 상근부회장의 직책을 맡은 지 한 달반이 지났다.

건축에 대한 특별한 이해나 관심도 없던 내가 건축과 건축사 문제에 매달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사실상 세상사람 모두가 건축물 안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다는 것을 직책을 맡음으로서 새삼 느끼게 되었고 나에게서는 매우 다행스런 일이었다. 이것은 내가 건축사협회 상근부회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는데 대한 업무철학의 바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삶과 건축물은 서로 떼어놓고 말하기 어렵고, 그래서 인간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내가 맡은 업무의 가치를 말해주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숙제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약 한 달반의 기간 동안 많은 건축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축설계업계가 시장상황이 예전 같지 않게 많이 위축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갈등도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앞서 말한 건축과 인간의 삶의 관계를 해석하고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축계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할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현존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놓고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변민하고 있다.

사실 난 가끔씩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나라의 ○○○건축가가 설계를 하였고...’라는 내용을 볼 때마다 ‘왜 우리나라 건축사가 설계를 하였다고 자랑하는 보도는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 내세울만한 건축사가 없는가, 없다면 왜 그렇게 되었나’ 하는 의문을 가졌다.

내가 만나본 많은 건축사들도 세계 수준의 건축사가 많이 양성·배출되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그래야 국내시장

을 벗어나 세계시장으로 건축설계의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되고 위축되는 국내시장을 놓고 야기되는 갈등도 줄어들 것이라 하였다.

맞는 말이라 생각된다. 난 협회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비롯한 협회 회원 건축사들의 열정과 자기희생적 노력을 옆에서 보고 있다.

분명 나에게서는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지만, 현실로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건축계의 변화·발전을 위한 큰 정신적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건축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 정부정책의 뒷받침, 일반국민의 건축과 건축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마침 2011년 5월 30일 건축사법이 전면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주요내용은 건축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건축사 자격 취득 및 관리를 세계적 기준에 맞추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작은 변화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바라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축사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일 것이다. 분명 건축사들의 열정과 자기희생이라는 정신적 자산이 있기에 변화에 대한 열망도 클 것이다.

그래서 머지않아 건축사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를 누비는 많은 건축사들을 보게 될 것으로 믿는다.

난 지금 매우 기분이 좋다! ■